

광주시립미술관 10월 개장

북구 운암동에 총 260억 투입 4층 규모로 준공 더부살이 15년만에 독립...아트 스텍·탁아실 갖춰

‘문화수도’ 광주 미술인들의 숙원이던 ‘광주시립미술관’이 준공됐다. 시립미술관은 오는 10월 11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이로써 지난 1992년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한 칸을 얻어 ‘더부살이’로 출발했던 시립미술관은 15년 만에 독립 공간을 확보, 활발한 미술전시와 창작활동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23일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내 옛 과학관·통일관 부지 1만8천430㎡에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8천660㎡ 규모의 시립미술관을 착공 2년만인 지난 16일 완공했다”고 밝혔다.

신축미술관에는 국비 78억원 등 모두 259억원을 투입했으며, 지하 1층은 수장고와 작품해체실, 지상 1층은 설치작품 전시가 가능한 기획전시실과 아트 스텍·탁아실·의무실 등으로 꾸며졌다.

2층에는 전시실과 준비실·전문자료 열람공간이 있으며 3층에는 천장이 유리라 돼 자연채광이 가능한 전시실과 야외 전시공간이 있고 프랑스로피두 센터에서 착안한 옥상 커피숍

도 마련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홍보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국내 국·공립 미술관 최

초의 어린이 미술관(3천466㎡)로 꾸며졌다. 어린이 미술관에는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창작체험관과 도예

실, 문화교실 등을 배치했다.

신축 미술관은 기존 미술관과 연면적은 비슷하나 수장고를 3배 늘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하면서 설치 미술공간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신축 미술관은 수장고의 작품 이전과 전시준비를 마친 뒤 10월11일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시활동에 들어간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옛 과학관 터에 최근 준공된 광주시립미술관. 오는 10월 11일 정식으로 개관한다.

(광주시제공)

‘화려한 휴가’ 일해공원서 상영

합천군·‘전사모’ 등 반대 불구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강행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영화화한 ‘화려한 휴가’가 23일 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야호를 탄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에서 야외 상영됐다.

이날 영화 상영은 ‘일해공원의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해 온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것으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탕하는 모임)와의 충돌이 우려됐다.

이날 행사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해공원 반대 경남대책위원회’와 ‘생명의 숲 지키기 합

천군민 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남진보연합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및 가족 등 약 1천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했다.

경남대책위와 ‘5월 어머니회’ 등 5·18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영화 상영에 앞서 일해공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과 영화 ‘화려한 휴가’ 상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대책위 등은 이날 오후 공원 입구에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사모 회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

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합천군은 야외 영화상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며 공원의 전기공급을 끊었으나 주최측은 보조 발전기를 돌려 영화 상영을 강행했다.

합천군은 경남진보연합 등이 지난 12일 패어난 ‘일해 공원’ 간판을 다시 부착했으며, 이후 전사모 회원들이 공원 입구에 텐트를 치고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었다.

영화 상영에 반대해 온 합천군은 주최측에 패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4개 중대 경력을 배치했다.

/합천=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박사 6.6% ‘짜퉁’

4,199명중 276명이 ‘비인증 대학’ 학위

학술진흥재단조사

2003년 이후 5년간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한 미국 박사학위 신고자 4천199명(324개 대학) 중 6.6%인 276명이 비인증 대학에서 학위를 딴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7

년 7월까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재단측에 신고한 사람은 7천765명(943개 대학)이고 이중 미국 대학 박사 학위 취득자는 54%에 이르는 4천199명이다.

재단이 미국 연방 교육부 인증 대학 확인 홈페이지(http://ope.ed.gov/accreditation/Search.asp)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비인증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276명에 이르고 이중 목회학 등 기독교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 140명으로 절반 이상이며 경영·교육·예술 등 전공자도 포함돼 있다.

‘부정 학위 의혹’에 휘말린 김옥람 교수가 학위를 받은 퍼시픽웨스턴대학이나 최근 ‘학위 남발’ 대학으로 알려진 미국국제대학(AIU) 등 비인증 대학은 731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인증 대학 박사학위자 276명이 나온 대학은 모두 23곳으로 미국국제대학(AIU), 미드웨스트신학대가 각 39명으로 가장 많고 코언신학대 38명, 버나디언대학 28명, 헨더슨크리스천대학 27명 등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즐지에 부담스러워 졌다

전남 거주 외국인 ‘지원 길’ 열린다

도, 관련 조례 제정키로

전남도가 도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23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올 5월 말 현재 1만6천312명으로 도내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도내의 농촌 총각과 중국, 베트남 등 외국 여성들의 결혼이 늘고 투자유치와 관광개발로 인한 도내 거주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언어소통과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다.

지원대상으로는 거주 외국인을 비롯해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기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이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조,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지위 약화에 적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

상반기 나라살림 22조 적자

재정 조기집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6조1천억

올해 상반기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22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나라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6월 말 현재 22조5천71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 현재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조1천350억원으로 기금에서 7조6천억원, 기업특별회계에서 9천

980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정부예산 부분이 14조7천3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 11조5천억원, 지난해 2천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거둔 세금과 국가보유 주식·자산 매각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액은 125조1천160억원, 정계액은 131조2천52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기초노령연금제 재정대책 세우라”

시도지사협 등 성명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기초노령연금제가 재정 부담을 우려한 광주·전남 등 기초자치단체의 반발로 출발 전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광주시 등이 포함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개 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비 지출이 갈수록 늘어 지자체들이 극심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령연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비용은 중앙정부의 전액부담하라고”고 촉구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 통: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매·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채권자의이제출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07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65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시 35,000주에 대하여 임의 부상 소각하기로 하여 발행주식총수 50,000주를 1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시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본 회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2일
주식회사 알코코리아
광주 광산구 장곡동 750-5
대표이사 김 전 설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통증

진정한 통증 관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통증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통증제거 기술을 배워 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에서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함으로써 아래의 모든 증상 외 수많은 통증을 발생 원인부터 즉석에서 제거하는 기술까지 모두 지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두통, 경항통(목), 어깨통증(오십견 포함), 목 허리 디스크, 등, 가슴, 배 등의 통증, 각종 요통, 고관절, 열골의 미용방법(사각턱이나 광대뼈 교정), 서혜부, 골반의 통증, 장단족, 테니스나 골프 엘브, 각종 신경통이나 관절염, 침을 흘리고 말이 더단중, 비만제거 기술, 중풍, 수전증, 수족이 저리고 힘이 없는 증, 가부좌가 안 되는 증, 척추나 등의 측만증, 척추교정, 근육통, 수족이 저리거나 힘이 없는 증, 중풍으로 눈매진 신경을 회복시키는 방법, 안면신경마비, 눈이 뜰어진 사시, 비만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생리통, 각종 질환의 허실을 구분하는 방법과, 침이나 구를 이용하여 다스리는 방법 등

● 등 록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심 통증 예방 관리학과 ● 전 화 : 조선대학교 (062)230-7700, (직통)019-305-9138
● 개강일 : 9월 6일(목) 오후 14:00~17:00 저녁 19:00~22:00 ● 장소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 앞 농성동] 361-8111
분원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충동)] 529-8111

문제풀이 실전(동행)모의고사문제풀이(특수프린트물) 기본서 특별반
과목별 전범위에 걸친 문제를 매일 풀면서 시간 배분과 실전문제풀이 테크닉을 습득하는 과정 기초없는 분을 위한 강의

개강 9월 3일(주,아) www.gjserom.com ●전국 합격률 1위 학원! 전국 25개 지점 학원! ●서울새물향정고시학원 광주상록 5년(최고 합격자 배출) ●저자 직강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공인중개사전문 전국합격률 1위! 새물향정고시학원 ●서울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계림동 구시청사거리 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본원 361-8111
분원 529-8111